

# 박물관에서 즐기는 두근두근 여름방학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방학을 가장 즐겁게 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시원한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문화 피서. 올해도 지역 국립박물관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 공연 등 다채  
먼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야외 정원 자체가 훌륭한 피서지다. 정문에 들어서면 44년간 잘 가꿔진 넓은 정원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푸른 수목과 붉은 백일홍의 색감 대비는 이색적인 감흥을 선사한다. 정원에는 고인돌과 탑, 가마터 등도 있어 역사와 어우러진 정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박물관 최고의 브랜드는 '아시아 문화도자'. 도자문화실에서는 한국의 명품 도자기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도자기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각국의 도자기는 서로의 자기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가상 현실 체험관, XR체험실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700년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신안해저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게임형 체험으로 만날 수 있다. 인터넷 사전 예약제 운영.

역사문화실은 우리 삶과 가장 연관이 있는 공간이다.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역이 어떻게 변모해왔고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왔는지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선사와 고대 고고학 유물을 비롯해 수준 높은 불교공예품,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역사문화실 입구에는 저학년, 고학년 활동지가 마련돼 있어 우리 문화재를 더욱 깊이 대면할 수 있다. 특히 활동지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설명을 볼 수 있다.

여름철에 맞는 전시도 마련돼 있다. 오는 15일 까지 전시되는 '여수, 그 시절의 바다'는 여수의 역사를 다채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아름다운 바다 그러나 마냥 아름답지만은 바다, 여수 바다를 모티브로 남도 문화의 진수와 낭만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이다.

광주박물관의 특징은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꾸며져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전 신장동 마을을 탐험하며 선사인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지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공으로 변모해 디지털 도자기를 만들 수 있고 무역선인 신안선을 통해 국제교류까지 접할 수 있다.

최근 개발한 도자기 교육상자도 어린이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는 매개체다.

광주박물관은 광주과학관과 하나의 주제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여름! 박물관과 과학관 이야기'를 주제로 '여수'에 초점을 맞췄다. 박물관에서는 여수의 신석기 시대 동물을 모티브로 한 여수 사파리 교구로 동물 빛 그림 활동을 펼쳐며 과학관에서는 거북선 교구 조립을 매개로 거북선에 담긴 과학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도 마련돼 있다. '가족뮤지컬-인어공주'는 오는 27일 펼쳐지며 인터넷 사전 접수해야 한다. 오는 28일까지는 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소울', '보헤미안 랩소디' 등 다양한 작품을 상영한다. 오는 10일부터 31일 오후 2시 당일 선착순 관람 가능하다. 온라인문화체험 놀이터는 연령에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우리 문화재를 온라인으로 게임하듯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박물관이다. 문의 062-570-7053.

## 국립광주박물관

▶문화도자실·가상현실 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도자기 교육상자  
27일 '뮤지컬-인어공주' 공연

## ◇국립나주박물관 큐레이터와 대화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에서는 올 봄에 개관한 실감콘텐츠 체험관에서 다채로운 영산강 유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파노라마 스크린(폭 35m, 높이 3m)에서 펼쳐지는 대형 영상을 통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다.

고대인들의 꿈과 염원이 담긴 금동신발을 비롯해 신촌리 9호분 금동신발, 복암리 3호분 금동신발,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이 발현하는 금빛 향연이 펼쳐진다.

상설전시실에서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문화 발전의 바탕이 됐던 영산강 일대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삼한의 중심 마한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 5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모인 연맹체였던 마한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오는 31일 '남승도'로 만나보는, 빙글빙글 나주 문화재 여행은 전선영 학예연구사가 강사로 나선다. 나주의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립나주박물관

실감콘텐츠 영산강유역 문화유산  
31일, 전선영 강사 '남승도' 강의



박물관 숲 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아이들과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관람객들.

(광주박물관 제공)

## 지일령 '그리움으로 피워낸 홍매', 안수경 '영원-1333(1)'

###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수상

### 15개 부문 975점 입상

35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 지일령 작가의 '그리움으로 피워낸 홍매', 수채화 부문 안수경 작가의 '영원-1333(1)'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975점이 입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에는 15개 부문에서 1739점이 출품돼 대상 4점, 최우수상 21점, 특선 267점, 입선 683점 등 975점이 상을 받았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방식으로 공모전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대학생들의 공모 참여 유도와 청년작가 발굴을 위해 대학부를 신설했으며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부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현장 위호를 실시했다. 또 수상작 집계 오류 방지를 위해 서예 한문 부문 감수를 실시했다.

신설된 대학부 대상은 서양화 부문 유수연 작가의 '한 발자국 내 밑을 때'가 수상했으며 서예 부문 박남주 작가의 '판교선생시구'도 대상을 수상했다.

정순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주최측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 미술대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읽었다"며 "회화, 조각, 공예 출품수가 대폭 증반된 민화, 서각 등 신설분과의 창작 능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에 200만원, 대학부 대상에게는 대상 300



수채화대상 안수경 작 '영원-1333(1)'



대학부 서양화 대상 유수연 작 '한 발자국 내 밑을 때'

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회는 9월5일부터 6일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서예=박헌희(채근담구) 강신기(묵은선생 시) ▲문인화=이혜정(매화) ▲한글서예=신준자(사람이 살아가지면) ▲캘리그래피=맹순희(비움) 광미례(행복의 날개를 활짝 펴라) ▲한국화=안경희(가을풍경) 민호기(솔숲 속으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순천 송매정 원림' 전남도 문화재 지정

### '보성 문재도 관련 고문서'·'곡성 설산산성' 등 3건

전남도가 4일 '보성 문재도 관련 고문서', '순천 송매정 원림', '곡성 설산산성' 등 3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

보성 문재도 관련 고문서(유형문화재 제355호)는 병자호란 때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을 지킨 인물에 관련된 고문서다. 병자호란 당시 일기인 '남한일기', 문제도의 무과 합격증서와 임명장, 군사 관련 문서인 '유서' 등이 포함됐다. 이 문서들은 당시 사회상과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어 학술 가치가 높다.

순천 송매정 원림(기념물 제259호)은 조선 광해군 시기 인물인 우산 안방준이 우산전사 동쪽에 단을 쌓은 것을 시초로, 그의 후손 안창훈이 1817년 선조의 뜻을 기려 송매정을 건립해 조성된 것이다. 원림은 정치와 함께 연못, 수림을 갖췄으며 편액, 시판, 현판,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문구인 주련 등 기록유산이 함께 확인된다. 건 축물과 주변 풍광의 공간성, 기록물 등을 보아 별 서원임으로서 역사적, 학술 가치가 높다.

곡성 설산산성(문화재자료 제295호)은 성벽 추정 길이 1300m, 문지 3개소(동·서·남), 건물지 4개소, 대형 집수시설이 확인됐다. 신라 말 고려 초 시기의 토기와 기와 등으로 보아 10c 전후 축



순천 송매정

성해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계곡 일대를 돌아가며 성을 쌓는 방식인 포곡식과 성벽 일부를 산의 등턱까지 내려서 성을 쌓는 방식인 산복식 성으로, 자연 지형을 이용해 통일신라시대 축성법으로 축조했다. 성곽사와 당시 관방체계를 연구하는 데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또 '고흥 성불사 석조여래입상', '나주 이광선 선무원종공신녹권과 고문서'를 각각 유형 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손형권 작가 '나무 이야기' 10일까지 금호갤러리

'흑과 백으로 풀어진 나무 이야기' 한국화가 손형권 작가 개인전이 오는 10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Tree sto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손 작가는 검은색과 흰색의 단순한 색감과 여백으로 완성한 나무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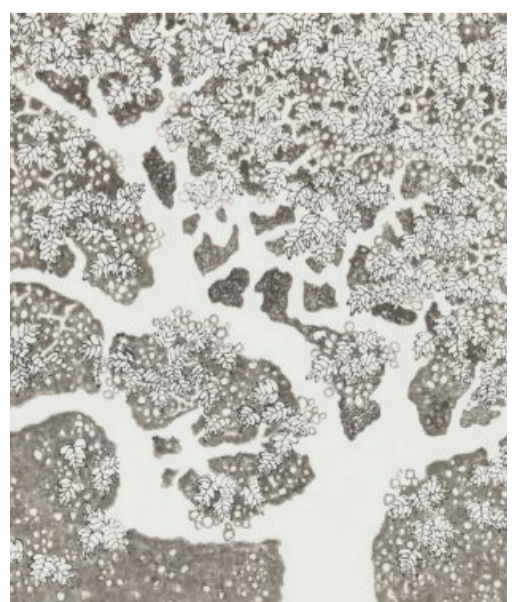
손 작가는 한국화의 기본적인 요소인 '먹'을 사용해 전통수묵화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했다. 작가의 이번 작업은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꽃을 피우고, 이파리의 싹을 틔우고 또 모두 떨궈내는 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삶과 빚낸 것들이다.

화려한 채색 없이 먹의 농담으로만 표현해낸 작품은 자연스러운 번짐과 여백을 활용한 공간 구성

이 눈에 띈다. 화면에 등장하는 나무들은 잔잔한 느낌을 전하며 삶의 소박한 태도도 감지된다. 채색화가 지닐 수 없는 답답한 맛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대신 한국화 고유 양식을 살리면서 그 안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지만, 작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손 작가는 "먹은 본디 단일색이지만 모든 색을 다 함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무엇보다 정신성이 강한 재료로 인식돼 왔다"며 "흑백 작품을 통해 먹의 정신성을 되새기고 우리시대에 맞는 다채로운 수묵의 변화를 모색해보려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tree story'



전라북도어린이국악관현악단

## 전북어린이국악관현악단, 6일 '국악이 좋다'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6일 오후 5시 토요일 상설 '국악이 좋다'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초청 무대다.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은 지난 2004년 4월 전국 최초 창단한 어린이국악관현악단으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그 기량을 뽐내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부산아시아인재교육공식음악으로 사용된 양방언의 관현악 'Frontier'로 시작한다. 이어 해금산조의 깊은 맛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지는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을 해금 연주자 김

희진이 협연한다. 이어 북에서 태평소를 개량해 만든 '장새남'로 장새남 연주자 이영훈이 '열풍'과 'Amazing Grace'를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축제'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토요일 공연은 무료이며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061-540-4042.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